

[전반적 느낀점]

전세계에서 AACSB 인증을 받은 경영대학의 Honor Society인 BGS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서강대학교 대표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Global Leadership Summit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도 가지 않았고 외국을 여행 이외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기대되고 설렜었던 것 같습니다. Global Leadership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전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이 어떨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기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리 높지 않은 Speaking 실력을 가지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100% 표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긴장도 되고 걱정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포럼에 참석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고 제게 있어서 이 3박 4일 일정의 Global Leadership Summit은 인생의 잊지 못할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day1]

이 포럼에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홍콩, 중국 등의 아시아권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가깝게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문화는 서로가 다 다르고 그 전까지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Global Leadership Summit을 통해 Beta Gamma Sigma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첫 날에는 Clifton Strengths Finder self Discovery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낸 장점을 바탕으로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미래 커리어에 어떠한 역량으로 발휘 될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Jayne Jenkins 연사가 약 2시간 정도의 세션을 진행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day2]

둘 째 날에는 아침 7:15분부터 강행군이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후 약 1시간 동안 Leadership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Dr. Preston의 future career를 위한 리더십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매우 열정적인 강연을 통해 각자 발표도 하고 그림을 통해 표현도 하면서 서로의 leadership에 대한 것을 show off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미국 BGS 출신이자 딜로이트에 다니고 있는 Kennis Dees 가 대학생 커리어를 위한 강연 및 Q&A를 진행하여 전 세계 대학생들의 각 나라에서의 고민을 들어보고 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었습니다.

[day3]

셋 째 날 역시 아침 7:15분에 식사와 함께 Leadership에 대한 강연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연사는 Joshua Szarek 으로 군인과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리더십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발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 한다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팀을 지정하여 Case Competition을 진행하였는데, 제가 속한 조는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한 business plan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8명이 한 조였는데, 각 strength에 맞는 포지션을 먼저 정하고 서로 토의하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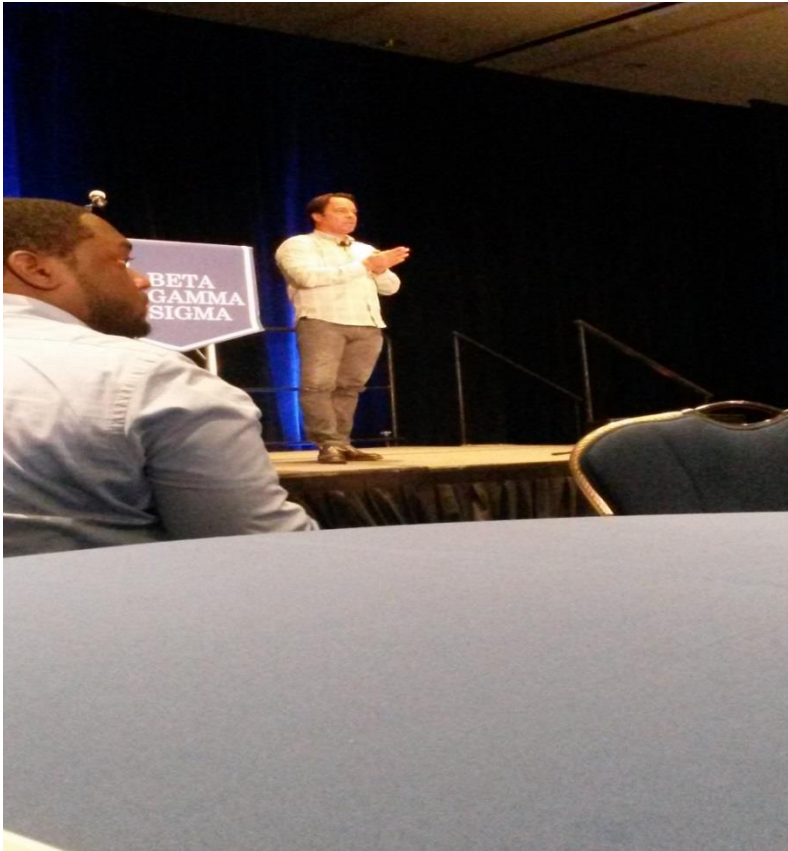
다. 이후에는 각 자가 맡은 파트를 조사하여 하나의 PPT로 합쳤는데,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과 QUALITY 가 높은 결과물을 얻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day4]

마지막 날에는 셋 째날 진행한 Case Competition 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과 함께 좋았던 점과 보완 할 점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심사위원들의 통찰력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참가 한 모든 팀의 발표가 끝난 후 1~4등까지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아쉽게 상을 타진 못했지만 조원 모두 결과물에 만족하여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상 이후에는 BGS의 CEO 인 Chris Carosella 의 마무리 연설과 함께 모든 Global Leadership Summit의 일정을 마치었습니다.

[느낀점]

이번 포럼을 참여하면서 여러 우수한 연사들의 강의와 토론도 유익했지만 역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생각합니다. Beta Gamma Sigma 회원이 세계 각지에 널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회사에 입사한 후 출장을 가거나 할 때, 또는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설렘니다. 비록 3박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3박 4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 저한테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학교의 Beta Gamma Sigma 회원들에게 이 Global Leadership Summit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라는 조언도 해주고 싶습니다.







Welcome to the
Beta Gamma Sigma
**Global Leadership
Summit**

#BGSLeaders



BETA GAMMA SIGMA
HANOI, VIETNAM

